

십 계 명 (해 설)

일 :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송하여라.

하느님을 만유 위에 높이 섬기고 하느님이 아닌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다.

하느님은 이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야훼 너희의 하느님은 질투하는 신이다. 나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그 후손 삼사 대에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여 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후손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신명5,9-10).

그러므로 어떠한 것이라도 하느님보다 위에 모실 수 없고 더 귀하게 여길 수 없으며 더 마음을 빼앗겨도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마르 12,30).

제1계에 관련된 금지사항

- 1)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을 공경하는 것.
 - 부처상이나 우상, 그리고 해, 달, 바위, 나무 등에 존경을 표시하는 것.
 - 잡신[삼신, 토지신, 바다신 등]이나 조상의 영혼을 흠송하는 것.
 - 무당을 데려다 굿하는 것.
- 2) 하느님 아닌 것에 의지하여 무엇을 알려고 하는 것.
 - 점술, 철학관, 도사 등에게 무엇을 물어보는 것.
 - 수상, 관상, 사주 등을 보는 것.
 - 풍수설, 정감록, 토정비결 등을 믿는 것.
- 3) 하느님께 봉헌된 거룩한 것을 모독하는 것.
 - 사람 모독 : 성직자나 수도자를 모독하는 것.
 - 장소 모독 : 성당이나 교회묘지를 모독하는 것.
 - 물건 모독 : 성사나 성물을 모독하는 것.
- 4)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하느님을 흠송하지 않는 것.
 - 무교회주의나 무신론 등에 동조하는 것.
 - 유대교적 의식을 도입하는 것.
 - 거짓 기적, 발현, 예언을 주장하고 선전하는 것.
 - 교구 직권자의 허락 없이 타종교나 타교파의 집회에 참가하는 것.

〈우리의 생활〉

우리가 직접 잡신을 섬긴다든가 우상숭배나 점술 등으로 하느님을 모독하지는 않는다 해도 자신의 지혜, 건강, 아름다움, 욕정, 행복, 재산, 권력, 가족 등을 하느님보다 더 섬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신을 변호하지 말라는 계명이다.

이름은 한 인격체의 본성과 특성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가 현존하기를 바라고 그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자신이 하나님 대전에 있음을 의식해야 하고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도록 기도하기를 명하셨고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마태7,21)고 하셨다.

제2계에 관련된 금지사항

- 1) 하나님의 이름은 물론이고 천사들과 성인 성녀들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말 것이다.
- 2) 특별한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실의 증거자로 내세워 맹세하지 말 것이다.
- 3)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함부로 하나님께 하지 말 것이다.
- 4) 하나님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비방하지 말 것이다.
- 5) 자기에게나 타인에게 하나님의 벌을 빌지 말 것이다.

〈우리의 생활〉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하나님이나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장난삼아 헛되이 부르지는 않겠지만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예:화살기도를 하기 위해] 좀더 정성되이 부르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성되이 부르는 것 자체로도 하나의 좋은 기도입니다.

삼 :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주일에 하느님께 공적 흠송례를 드리기를 명하고 육신 일은 금지하는 계명이다.

주일은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음과 파스카의 신비로 구원되었음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지내야 할 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미사에 반드시 참여하고 주일을 하느님께 봉헌하여 세상사보다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제3계에 관련된 금지사항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기 위하여 일을 하지 않고 마음을 하느님께로 향하게 함을 파공이라 한다.

모든 주일과 의무적 축일에 지켜야 할 파공은 육체적 노동[농사,철공,목공,바느질,빨래 등], 상행위, 법정의 판결 등이다.

한국 주교회의는 신자들이 일반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파공을 특별히 면제하였다. 단, 예수부활, 예수성탄, 성령강림, 성모승천,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은 파공 관면이 주어지지 않는다. 주일 및 대축일의 파공 관면이 미사참여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생활〉

요즈음 외교인들도 주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는 파공 관면으로 주일에 일할 수는 있지만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풍토조성에 앞장설 것이다. 주일에 가족이 함께 성당에 가고 이웃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는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은 참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파공(罷功)

주일이나 의무적인 축일에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경우 4대 축일(부활, 성탄, 성령강림, 성모승천)을 대파공, 그 외의 주일을 소파공이라 하여 육체적인 노동을 삼가고 거룩하게 지내도록 명하고 있다. 지킬 수 없는 경우는 파공관면을 청해야 하나(4대 축일은 제외), 한국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 관면을 요청하지 않아도 파공관면이 주어졌었다. 한국교회는 전교지역으로 빈곤한 경제사정과 노동계의 형편을 고려하여 주일파공이 1966년 11월 15일부터 교황의 인준을 받아 관면되어 왔다. 그리고 금육재 역시 연중 매 금요일이 관면되고 재의 수요일과 사순절 동안의 금요일만 지키도록 완화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1990년 재의 수요일부터 주일 파공과 금육재 관면을 전면 취소했다. (1989.10.19.추계 주교회의) 따라서 이제는 모든 주일과 평일 의무축일(성탄,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승천)에 파공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금육재도 재의 수요일은 물론 연중 모든 금요일에 지켜야 한다. (연중 모든 금요일에는 어느 대축일과 겹치지 않는 한 육식을 자제해야 한다.)

그러나 법 준수가 불가능할 경우 금육, 금식을 부득이 위반하더라도 하느님 앞에 탓이 없다고 하여 금육재는 자발적으로 시행토록 하였다.

사 :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직접적으로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이고 간접적으로는 윗 사람 모두를 섬겨 사회질서를 바로 잡게 하는 계명이다.

부모는 생명의 전달자이고 양육의 책임자이며, 신앙생활의 전수자이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과 존경심으로 부모에게 효성을 드리고 순종해야 한다.

부모와 자녀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된다. 이 관계에 성실할 때 다른 모든 관계를 원만히 이어가고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하느님은 제 4계명을 주시면서 축복을 약속하신다.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탈출20,12).

부모에게 효도할 의무는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된다. 부모가 비록 세상을 떠났어도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준 생명이 존속되고, 부모의 가르침이 유효하게 남아 있고, 부모가 자녀의 도움을 요구하고 있으며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위령 기도'를 정성껏 바쳐야 한다.

그 밖의 인간관계 :

부모를 대신하는 사람[부모가 안 계실 경우 말형 혹은 친척, 대부모, 스승 등]에게도 부모에게 대하는 존경과 사랑으로 그를 따라야 합니다.

하느님의 권위로 사목하는 성직자에게도 사랑과 존경으로 따를 의무가 있다.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수고하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사람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극진히 공경하십시오" (1데살5,12-13).

합법적 정치 체제가 공동선을 목적으로 윤리 질서의 한계 내에서 공권력을 행사할 때 국민은 복종해야 할 양심상의 의무를 갖는 것입니다.

오, 사람을 죽이지 마라,

직접적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간접적으로는 인권을 보호하라는 계명이다.

생명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느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느님 이외에 그 누구도 생명을 침해할 수 없다.

생명 자체뿐만 아니라 지체와 사람 되게 하는 모든 조건까지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온갖 종류의 살인, 집단학살, 낙태, 안락사, 고의적인 자살과 같이 생명 자체를 거역하는 모든 행위와 지체의 상해, 육체와 정신의 고문, 심리적 탄압과 같이 인간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와 인간 이하의 생활조건, 불법 감금, 유형, 노예화, 매춘, 부녀자와 연소자의 인신매매, 또는 노동자들이 자유와 책임을 가진 인간으로서 취급되지 못하고 단순한 수익의 도구로 취급되는 노동의 악조건과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모든 행위는 인간문명을 손상시키는 행위이며 불의를 당하는 사람보다 불의를 자행하는 사람을 더럽히는 행위로서 창조주께 대한 극도의 모욕이다".

"사실 생명의 주이신 하느님께서는 생명유지라는 숭고한 임무를 인간에게 맡기시어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품위에 알맞은 방법으로 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생명은 그 수태되는 순간부터 성심껏 보호해야 할 것이다. 낙태와 유아 살해는 가증할 죄악이다".

〈우리의 생활〉

이웃을 미워하며 그들을 질시하고, 모함한다든지 저주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그를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즐겨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닮아 우리도 쉽게 용서하는 덕을 쌓고 적어도 미움을 드러내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육, 간음하지 마라

혼외 정사를 금하고 정결을 보호하는 계명이다.

부부생활은 삶의 기초가 되고 사회생활의 원동력이 된다. 그러므로 부부생활은 제3자에 의해서 침해될 수 없기 때문에 성을 주신 하느님의 뜻에 따라 혼인 밖의 모든 성행위를 금하고, 부부 사이에도 성을 바르게 사용하기를 명한다. "여러분은 음행을 피하고 각각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자기 아내의 몸을 대하고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처럼 욕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1데살4,3-5).

〈우리의 생활〉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사회윤리의 퇴폐를 막고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니 특별히 성윤리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약혼은 결혼을 약속한 것이지 혼인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혼한 사이라는 핑계로 쉽게 순결을 잃는 일이 있다. 이것은 잘 자라는 사랑의 새싹을 밟아 버리는 행위요 결혼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순결은 결혼의 가장 고귀한 준비요 최고 선물이며, 그들의 사랑은 한없이 자라고 그들의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치처럼 신성한 것이 될 것입니다.

철, 도둑질을 하지 마라,

생명 유지에 필요한 재산을 보호하는 계명이다.

사람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기반 위에서 하느님이 주신 재능과 힘으로 생활유지에 필요한 재물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재산의 1차적인 소유권은 하느님께 있고 2차적으로 정당하게 번 사람이 소유권을 갖는다.

따라서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파괴할 수 없고, 자신의 물건도 함부로 쓰지 못한다. 물건뿐만 아니라 남의 자유나 시간 및 노동력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이며 뇌물을 받고 공익에 손해를 끼치는 것도 도둑질이다.

〈우리의 생활〉

돈은 쓰기 위해서 버는 것이지 모으기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재물의 원래 임자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대로 재물을 나누어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난한 형제자매들을 볼 때 기꺼이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사랑을 실천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느님으로부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의식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권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팔,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이웃의 명예, 자유, 권리, 생명을 말로써 해치지 말라는 계명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진실을 유린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부당한 해를 끼치고
따라서 사회 공동체가 요구하는 성실성을 저 버리는 행위이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 침묵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고, 거짓말이 아닐지라도
타인을 시기하여 결점을 폭로하거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남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우리의 생활〉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거의 매일 다른 사람의 태도나 행동에 대한 증인, 고발자, 판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거짓말로 서로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생활을 청산하여 낡은 인간을 벗어 버렸고
새 인간으로 갈아 입었기 때문입니다"(골로 3,9-10).

구,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흔외의 정사를 꾸미는 계획과 결심을 금하는 계명이다.

국법은 사람의 외적 행위만 규제하지만 하느님의 법은 사람의 생각까지도 규제한다.

9계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범죄할 수 있다.

과거의 사실을 회상하여 즐거으로써,

현재에 일어나는 욕정을 유발함으로써,

미래의 악행을 계획하고 결심함으로써 마음의 죄를 범한다.

〈우리의 생활〉

욕정은 유발하면 할수록 강해지고 억제하면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음란한 그림, 영상, 책 등을 멀리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 하느님을 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십,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타인의 소유물을 침해할 계획과 결심을 금하는 계명이다.

타인의 재물을 사기, 횡령, 도둑질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가며 돈을 모으거나, 타인의 재산을 파괴, 방화하기를 의식적으로 원하든가 계획 혹은 결심하는 것을 금한다.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불행[예, 자기가 상속 받기 위해 누가 죽기를 바램]을 의식적으로 원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생활〉

불로소득, 도박, 일확천금, 투기 등으로 재물을 모으려는 욕심을 버리고 근면과 성실로써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마태5,3)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보상의 의무

제5, 제6, 제7, 제8계명 중 어느 것을 범하여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쳤으면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

직접 갚지 못하면 간접으로나, 제 3 자를 통해서 갚을 것이다. 이 보상의 의무는 고백성사를 받기 전에 이행할 것이고 할 기회가 없었다면 고백할 때 이를 밝혀야 한다.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세상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1요한5,3-5).